

제16회 국정과제회의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아직은 확실하게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분권을 위해서는 자율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합니다. 분권은 자율성이 높은 시민들이 따라줘야 가능한데 걱정입니다. (자율의 역량에 대한 걱정 그런 거를 포함해서)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불안감도 없애고 책임을 어떻게 져 나갈 수 있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옳다는 생각으로 분권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또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